2012 년 5 월 29 일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

다나까 귀금속공업, 연료전지용 촉매의 2011년도 출하량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

■'에네팜(ENE-FARM)'의 본격 보급으로 가정용이 전년도 대비 약 67.2% 증가. 총 출하량 증가를 크게 견인
■자동차용은 보급 초기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출하량이 안정적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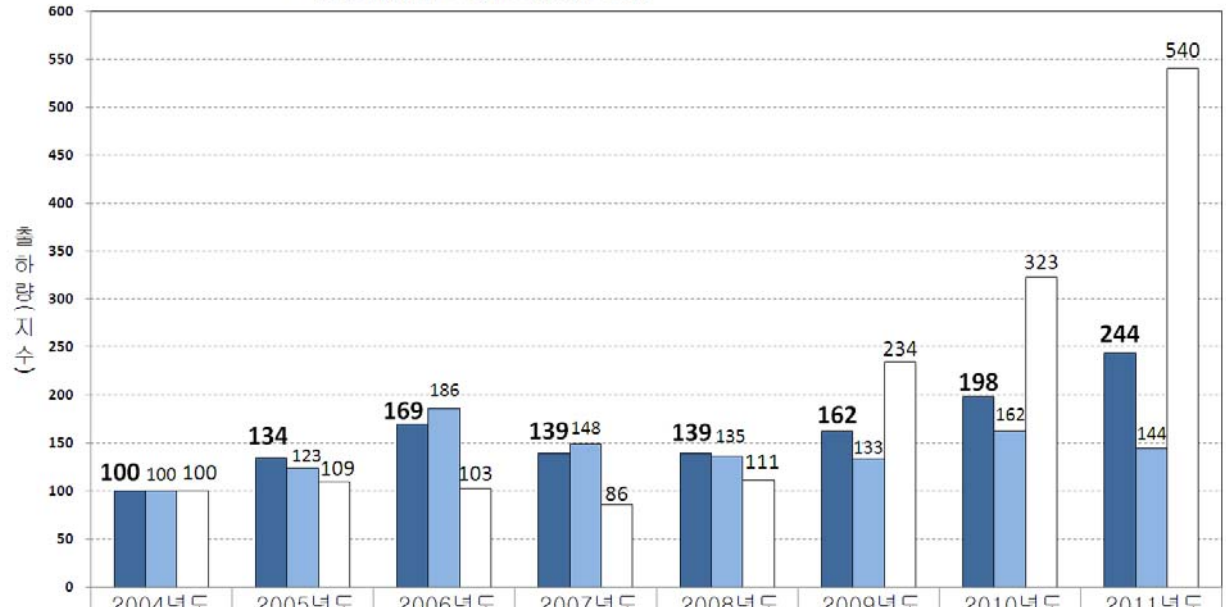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대표이사 사장: 오카모토 히데야)는 연료전지용 촉매에서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다나까 귀금속그룹의 다나까 귀금속공업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대표이사 사장: 오카모토 히데야)가 2011년도(2011년 4월~2012년 3월) 연료전지용 촉매의 출하량에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4년도(※1)의 출하량(지수)을 100이라 하면 2011년도의 총 출하량은 과거 최고인 244로 지금까지 과거 최고였던 2010년도(198)에 비해 약 23.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연료전지 '에네팜'에 사용되는 촉매의 출하량이 2010년도(323)에 비해 약 67.2% 증가한 540을 기록함으로써 총 출하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자가발전과 절전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작고 저렴한 신형 '에네팜'이 발표되는 등 2011년도에 각 제조사가 활발한 판매활동 등을 전개한 데 힘입어 시장 보급이 가속화하여 촉매 수요량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료전지 자동차(FCV)에 사용되는 촉매의 출하량은 2011년도에 144를 기록하였고, 자동차용 출하량은 2006년도에 186으로 절정을 맞았으며, 그 후에는 일단 수요가 진정되어 150 전후의 출하량을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FCV의 보급 개시 시기가 될 2015년을 목표로 각 자동차 제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촉매 수요는 안정적인 추세입니다.

연료전지용 촉매 용도별 출하량의 추이

* 2004년도(2004년 4월~2005년 3월)의 연간 출하량을 100으로 봤을 때의 지수
* 총 출하량에는 모바일용 등도 포함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총 출하량	100	134	169	139	139	162	198	244
■자동차용	100	123	186	148	135	133	162	144
□가정용	100	109	103	86	111	234	323	540

■가정용은 전년도 대비 약 67.2% 증가로 과거 최고. '에네팜'의 본격 보급이 수요를 뒷받침.

전체 용도별로 보면 2011년도의 가정용 출하량은 2010년도(323)에 비해 약 67.2% 증가한 540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네팜'이 출시된 2009년도는 국가와 가스, 석유회사의 보조제도를 통한 지원도 있어 2008년도의 111에 비해 약 110.8% 증가한 234까지 급증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009년도 대비 약 38.0% 증가한 323을 기록하는 등 가정용의 출하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에네팜'의 신형 출시 및 여름과 겨울의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어 출하량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자가발전이나 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네팜'의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제도는 2009년도에 시행된 이래 2011년도에는 급속하게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2).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네팜'은 지속적으로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촉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용은 144를 기록.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전되어 안정적인 추세.

2011년도의 자동차용 출하량은 144를 기록했습니다. R&D가 활발해진 2006년도에 186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9년도에는 133, 2010년도에는 162로 최근 몇 년간 미세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촉매 제조사는 현재 연료전지의 "내구성 향상"과 "고성능화", "저비용화"라는 세 가지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FCV의 보급 개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5년을 앞두고, 계속해서 연구개발용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나까 귀금속공업에서는 연료전지 촉매의 고내구화, 고성능화를 통한 백금의 사용량 절감을 목표로 고객과 함께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료전지의 시장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체제와 생산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희소 귀금속 자원인 백금의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연료전지 보급을 위한 총체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2004년도는 가정용 연료전지의 실증시험이 국가 프로젝트로서 개시된 연도(2008년도까지)

(※2) '에네팜'의 구입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에서 2011년도의 신청 수리 대수(2012년 4월 4일까지의 1년간 집계)는 18,067대. 또한 2010년도의 교부 결정 대수는 4,985대, 2009년도는 5,030대였음. (일반사단법인 연료전지보급협회의 데이터)

■다나까 홀딩스 주식회사(다나까 귀금속 그룹의 지주 회사)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7-3 도쿄 빌딩 22 층

대표: 사장 겸 최고경영자 오카모토 히데야

설립: 1885 법인 등록: 1918 자본금: 5 억 엔

전체 그룹 종업원 수: 3,456 명(2010 년도)

총 그룹 매출액: 8,910 억 엔(2010 년)

그룹의 주요 사업:

귀금속(백금, 금, 은 및 기타) 및 각종 공업용 귀금속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귀금속 회수 및 정제.

웹사이트: http://www.tanaka.co.jp

■다나까 귀금속 공업 주식회사

본사: 도쿄도 치요다구 마루노우치 2-7-3 도쿄 빌딩 22 층

대표: 사장 겸 최고경영자 오카모토 히데야

설립: 1885 법인 등록: 1918 자본금: 5 억 엔

종업원 수: 1,532 (2010 년) 매출: 8,654 억 엔(2010 년)

사업:

귀금속(백금, 금, 은 및 기타) 및 각종 공업용 귀금속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 및 귀금속 회수 및 정제.

웹사이트: http://pro.tanaka.co.jp/kr

<다나까 귀금속 그룹 소개>

다나까 귀금속 그룹은 1885 년(메이지 18 년) 창업 이래, 귀금속을 중심으로 한 사업 영역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10 년 4 월 1 일에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를 지주회사(그룹의 모회사)로 하는 형태로 그룹 재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지배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속한 경영과 보다 빠른 업무 집행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나감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금속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 그룹 회사가 연계,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톱클래스의 귀금속 취급량을 자랑하는 다나까 귀금속 그룹에서는 공업용 귀금속 재료 개발부터 제품의 안정된 공급, 장식품과 귀금속을 활용한 저축상품제공 등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룹 전체가 귀금속에대한 프로로서 고객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공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나까 귀금속 그룹 핵심 8 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naka Holdings Co., Ltd. (pure holding company) (TANAKA 홀딩스 주식회사, 순수 지주회사)
- Tanaka Kikinzoku Kogyo K.K. (다나까 귀금속 공업 주식회사)
- Tanaka Kikinzoku Hanbai K.K. (다나까 귀금속 판매 주식회사)
- Tanaka Kikinzoku International K.K. (다나까 귀금속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Tanaka Denshi Kogyo K.K. (다나까 전자 공업 주식회사)
- Electroplating Engineers of Japan, Limited (일본 일렉트로플레이팅 엔지니어스 주식회사)
- Tanaka Kikinzoku Jewelry K.K. (다나까 귀금속 쥬얼리 주식회사)
- Tanaka Kikinzoku Business Service K.K. (다나까귀금속 비즈니스 서비스 주식회사)